

A Study on the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Internet Knowledge Search

Mi-Young Choi *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ed Internet Knowledge Search for their employment. The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ed Naver's Knowledge-iN Search during the year of 2014 to the year of 2015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the follows. Fir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ental disorders and physical disabilities asked many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Second, most minor disabilities asked many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than severe disabilities but excep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ird, their's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had some different but variou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Fourth, their's expected occupation had some different but variou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ctiv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roposed.

▶ Keyword : Disability, Employment needs, Internet Knowledge Search

I. Introduction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인터넷 지식검색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지식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식검색서비스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식검색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43.1%)가 사용이 편리한 점을 내세웠고, 그 다음으로는 무료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30.4%), 유용하다(18.2%), 재미있다(6.7%) 등을 선택하였다[1]. 또한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나 다수의 의견이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이렇듯 지식검색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지식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식과 정보, 조언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검색 서비스는 생활 밀착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방법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증가하여 28.8%로 보고되었는데, 인터넷을 통한 구직 관련 정보검색 및 습득, 지원서 제출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및 부업 등까지 포함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인터넷 구직활동이라 한다[3]. 이와 같은 인

터넷 구직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정보화 사회에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4-7]. 하지만 강종구 외[8]의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하였으며, 자신들이 어떠한 직업군에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며 취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인적으로는 인권,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을 신장시키고 잠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생산적인 직업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의 근간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국가와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9].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미취업한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실태 및 직업욕구 조사[10], 좋은 일자리에

• First Author: Mi-Young Choi,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Choi
*Mi-Young Choi(sese38@hanmail.net), Dept.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15. 11. 03, Revised: 2015. 11. 08, Accepted: 2015. 11. 16.

대한 미취업 장애인의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11], 그리고 비경제활동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취업욕구의 영향요인을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한 손광훈, 심미영, 염동문의 연구[12]가 있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취업욕구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다[13-18].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의사 유무, 취업희망 이유, 희망 임금 및 근로형태 등에 대한 설문 조사들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의 견해를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담아내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19,20,11], 장애인 고용이나 취업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취업 과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채용이 되지 않는 이유나 되는 이유 또는 채용 이후의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21]. 게다가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따르는 개인적 어려움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욕구(취업의사, 희망 급여 및 근로시간, 취업희망직종)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연구[22]는 설문 구성이 여러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있어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음을 보고하였으며, 장애특성을 보다 고려한 취업욕구 조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한 예로, 장애특성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취업하기도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확한 취업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지적장애인 개인별 또는 가족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태, 장애 및 건강상태, 취업경험 상태 등에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의 취업결정 여부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9].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장애인 본인의 주관적 입장 및 견해를 개별적·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고, 동시에 가장 타당성 있는 취업욕구 측정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취업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개별 장애인들의 취업욕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Contents &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인터넷 지식검색을 이용하는 질문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인터넷 지식검색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취업 관련 질문 내용은 무엇이며,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어떠한가?

셋째, 인터넷 지식검색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취업 희망 직종은 무엇이며,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어떠한가?

2. Data collection

먼저 우리나라 포털 지식검색사이트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네이버(www.naver.com)를 지식검색사이트로 선정하였다.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네이버는 매일 평균 약 1,6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국내 포털 검색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23], 랭키닷컴(www.rankey.com)의 포털 지식검색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네이버 지식iN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장애 취업’을 입력한 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네이버 지식iN DB에 등록되어 있는 질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자료 중 질문 내용이 장애인 취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총 282건의 질문을 조사 자료로 최종 결정하였다.

III.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questioners

1.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표 1>은 질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먼저 성별에서는 남자가 73명으로 여자보다 3배가량 더 질문이 많았다. 나이에서는 20~29세 사이의 장애인들(30.1%)이 가장 많이 질문하였는데, 적은 수이지만 19세 이하의 장애청소년들도 취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Questioners

	Item	Questioners
Gender	Male	73(25.9%)
	Female	24(8.5%)
	Not shown	185(65.6%)
Age	Under 19	10(3.5%)
	20~29	85(30.1%)
	30~39	16(5.7%)
	40~49	5(1.8%)
	Over 50	5(1.8%)
	Not shown	161(57.1%)
Academic Background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4(1.4%)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2(0.7%)
	Attending High School	11(3.9%)
	Graduated from High School	14(5.0%)
	Attending Undergraduate	14(5.0%)
	Graduated from Undergraduate	14(5.0%)
	Over Graduate	0
	Not shown	223(79.1%)
Residence	Seoul · Gyeonggi	5(1.8%)
	Metropolitan City	15(5.3%)
	Province	8(2.8%)
	Not shown	254(90.1%)

학력에서는 여러 기준에 대해 질문자가 고르게 분포하였는데, 대학 재학 이상의 장애인들은 전체 대비 28명(10.0%)이었다. 질문자의 거주 지역은 광역시가 15명(5.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 등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취업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ies

<표 2>는 질문자의 장애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282명 중 장애특성을 제시하고 질문한 사람은 233명(82.6%)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ies

Types	Degrees	Grades	Questioners	Total
Physical Disability	Severe	1	1(2.9%)	35 (12.4%)
		2	3(8.6%)	
		3	2(5.7%)	
	Mild	4	7(20.0%)	
		5	3(8.6%)	
		6	5(14.3%)	
	Not shown		14(40.0%)	
Brain Lesions	Severe	1	2(16.7%)	12 (4.3%)
		2	.	
		3	2(16.7%)	
	Mild	4	.	
		5	1(8.3%)	
		6	3(25.0%)	
	Not shown		4(33.3%)	
Visual Impairment	Severe	1	.	21 (7.4%)
		2	1(4.8%)	
		3	1(4.8%)	
	Mild	4	1(4.8%)	
		5	1(4.8%)	
		6	9(42.9%)	
	Not shown		8(38.1%)	
Hearing Impairment	Severe	2	3(13.0%)	23 (8.2%)
		3	2(8.7%)	
	Mild	4	1(4.3%)	
		5	3(13.0%)	
		6	1(4.3%)	
Not shown		13(56.5%)		
Language Disorder	Not shown		3(1.1%)	3 (1.1%)
Intellectual Disability	Severe	1	1(1.5%)	67 (23.8%)
		2	7(10.4%)	
		3	51(76.1%)	
	Not shown		8(11.9%)	
Autism Spectrum Disorder	Severe	1	.	3 (1.1%)
		2	.	
		3	2(66.7%)	
	Not shown		1(33.3%)	
Psychiatric Disability	Severe	1	.	47 (16.7%)
		2	1(2.1%)	
		3	5(10.7%)	
Not shown		41(87.2%)		
Respiratory Disorder	Not shown		1(0.4%)	1 (0.4%)
Facial Disorder	Not shown		1(0.4%)	1 (0.4%)

Epilepsy	Severe	2	.	11 (3.9%)
		3	1(9.1%)	
	Mild	4	2(18.2%)	
Not shown		8(72.7%)		
Multiple Disability	3		2(22.2%)	9 (3.2%)
	4		1(11.1%)	
	5		1(11.1%)	
	Not shown		5(55.6%)	
Not shown	2		2(4.1%)	49 (17.4%)
	3		2(4.1%)	
	4		2(4.1%)	
	5		2(4.1%)	
	6		2(4.1%)	
	Not shown		39(79.6%)	
Total				282 (100.0%)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15개의 장애유형 중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은 '지적장애(67명, 23.8%)'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장애(47명, 16.7%)', '시체장애(35명, 12.4%)', '청각장애(23명, 8.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서는 경중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전증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보다 질문이 많았고, 반대로 정신장애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경중장애인들보다 질문이 더 많았다. 장애등급에서는 지적장애 3급(51명, 76.1%)이 질문이 가장 많았다.

1.3 Characteristics of other questions

<표 3>은 취업 관련 질문 중 기타 특성들을 정리한 것으로, 질문자의 대부분(213명, 75.5%)은 자신의 인터넷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자신이 직접 질문하였는데(255명, 90.4%), 간혹 해당 장애인의 가족, 그리고 친구와 같이 주위에 친분이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특성으로 일부 장애인들(10명, 3.5%)은 인터넷 지식검색을 이용해 같은 내용을 질문했던 경험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Other Questions

	Item	Questioners
Showed ID	Yes	69(24.5%)
	No	213(75.5%)
Questioner Type	Him/Herself	255(90.4%)
	Family	12(4.3%)
	Friend	6(2.1%)
	Others	9(3.2%)
Ask Again	Yes	10(3.5%)
	No	272(96.5%)

Table 4. Types of Question Content

Types	Questioners
Employability	54(19.1%)
How to Find and Get a Job	46(16.3%)
Recommendation for Job and Career Path	46(16.3%)
Employment Handicaps	43(15.2%)
Advices for Employment Experience and Method	23(8.2%)
Special admission and Affirmative Action for the Disabilities	15(5.3%)
Others	11(3.9%)
Statement of Difficulty in Work Life and Employment	9(3.2%)
Education Institutions that Provides Affirmative Action for the Disabilities	8(2.8%)
Duplication of Benefit for Disability Allowance and Salary	8(2.8%)
Emigration and Overseas Employment	6(2.1%)
Salary and Working Conditions	5(1.8%)
Getting a Certificate	4(1.4%)
Related Laws	4(1.4%)
Total	282 (100.0%)

2.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2.1 Types of question content

<표 4>는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들이 알고자 하는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한 질문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질문자 수가 많은 순서로 나타내었다. 가장 많은 질문 내용 유형은 ‘장애특성으로 인한 취업 가능성 여부(54명, 19.1%)’였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기관이나 사이트에 관한 ‘일자리 정보 및 획득 방법’과 ‘직업 추천 및 진로 고민’에 대한 질문이 동일하게 많았다(각각 46명, 16.3%). 그 다음으로는 ‘장애등록 및 병원 치료 기록으로 인한 취업 불이익 여부’에 대한 질문이 43명(15.2%)으로 많았으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노하우와 같은 ‘취업 경험 조언 및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23명, 8.2%)도 많았다.

일부 질문에는 취업 시 ‘장애인 특별전형 및 혜택(우대) 제공 여부(15, 5.3%)’와 국비지원과 같은 ‘장애인 혜택주는 학원 및 기관 정보(8명, 2.8%)’에 대한 것이 있었다. ‘직장생활 및 취업 어려움 토로(9명, 3.2%)’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는 장애인들의 과거와 현재 직장생활 경험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질문 내용에는 ‘취업 부탁’, ‘창업 상담’, ‘취업성공 패키지 정보’,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여부’ 등이 있었다.

Table 5. Types of Question Content by Different Kinds of Disability

Disability Types / Question Contents	PD	BL	VI	HI	LD	ID	ASD	PD	RD	FD	E	MD	Total
How to Find and Get a Job	9 (19.6)	4 (8.7)	1 (2.2)	0	0	18 (39.1)	1 (2.2)	1 (2.2)	0	0	4 (8.7)	1 (2.2)	39 (84.8)
Special admission and Affirmative Action for the disabilities	1 (6.7)	1 (6.7)	1 (6.7)	2 (13.3)	0	0	0	5 (33.3)	0	0	0	0	10 (66.7)
Recommendation for Job and Career Path	7 (15.2)	1 (2.2)	9 (19.6)	6 (13.0)	1 (2.2)	5 (10.9)	0	5 (10.9)	1 (2.2)	1 (2.2)	3 (6.5)	2 (4.3)	41 (89.1)
Education Institutions that Provides Affirmative Action for the Disabilities	0	0	0	1 (12.5)	0	2 (25.0)	0	1 (12.5)	0	0	0	0	4 (50.0)
Salary and Working Conditions	1 (20.0)	0	0	0	0	4 (80.0)	0	0	0	0	0	0	5 (100)
Statement of Difficulty in Work Life and Employment	0	0	0	1 (11.1)	0	5 (55.6)	0	2 (22.2)	0	0	0	0	8 (88.9)
Duplication of Benefit for Disability Allowance and Salary	0	0	0	0	0	0	0	0	0	0	1 (12.5)	0	1 (12.5)
Getting a Certificate	0	0	1 (25.0)	0	0	1 (25.0)	0	0	0	0	0	0	2 (50.0)
Employment Handicaps	4 (9.3)	0	1 (2.3)	1 (2.3)	1 (2.3)	4 (9.3)	2 (4.7)	22 (51.2)	0	0	1 (2.3)	3 (7.0)	39 (90.7)
Employability	9 (16.7)	4 (7.4)	7 (13.0)	6 (11.1)	0	14 (25.9)	0	6 (11.1)	0	0	1 (1.9)	1 (1.9)	48 (88.9)
Related Laws	0	1 (25.0)	0	0	0	0	0	1 (25.0)	0	0	0	0	2 (50.0)
Emigration and Overseas Employment	1 (16.7)	1 (16.7)	0	3 (50.0)	0	0	0	0	0	0	0	0	5 (83.3)
Advices for Employment Experience and Method	2 (8.7)	0	1 (4.3)	2 (8.7)	0	9 (39.1)	0	4 (17.4)	0	0	1 (4.3)	2 (8.7)	21 (91.3)
Others	1 (9.1)	0	0	1 (9.1)	1 (9.1)	5 (45.5)	0	0	0	0	0	0	8 (72.7)
Total	35	12	21	23	3	67	3	47	1	1	11	9	233

2.2 Types of question content by different kinds of disability

<표 5>는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 관련 질문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질문자가 없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장애유형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또한 장애유형을 밝히지 않은 질문자를 제외한 233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지체장애인들은 ‘일자리 정보 및 획득 방법(9명, 19.6%)’, ‘장애특성으로 인한 취업 가능성 여부(9명, 16.7%)’, ‘직업 추천 및 진로 고민(7명, 15.2%)’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지체장애인들과 같은 질문이 많았다.

뇌병변장애인들 역시 ‘일자리 정보 및 획득 방법(4명, 8.7%)’과 ‘장애특성으로 인한 취업 가능성 여부(4명, 7.4%)’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지적장애인들은 ‘일자리 정보 및 획득 방법(18명, 39.1%)’에 대한 질문이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많았고, 그 밖에도 ‘장애특성으로 인한 취업 가능성 여부(14명, 25.9%)’와 ‘취업 경험 조언 및 방법(9명, 39.1%)’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러나 유독 정신장애인들은 ‘장애등록 및 병원 치료 기록으로 인한 취업 불이익 여부(22명, 51.2%)’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아, 자신의 장애를 밝히지 않고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3. Desired occup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1 Desired works

<표 6>은 장애인의 취업 희망 직종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282명 질문자 중에 약 40%가 희망하는 직업(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Table 6. Desired Works & Jobs

Works	Jobs(or Field)	Questioners
Production, Manufacturing	Shipyards, Technique, Confectionery & Bakery, Large Company(Production), Factory	17 (5.9%)
Food Service	Barista, Cooking, Kitchen Porter	16 (5.5%)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Officer(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or Driving)	16 (5.5%)
Beauty, Travel, etc.	Hairdresser, Nail Artist, Hotelier, Cosmetologist, Funeral Service, Skin Care, Makeup, Cleaning Company, Cleaning(at a Hospital), Theater, Hotel & Tourism	12 (4.1%)
Social Welfare	Social Worker, Care Worker	11(3.8%)
Law, Police, etc.	Law School, Police Officer, Firefighter	8(2.8%)
Culture, Art, etc.	Newspaper, Voice Actor, Fashion Designer, CAD, Florist	6(2.1%)
Education	Kindergarten Teacher, Teaching Assistant, Child Care Teacher, Suicide Prevention Instructor, Youth Counselor, Youth Worker, Korean Teacher	5(1.7%)
Driver, Transportation	Bus or Subway Company, Airline, Fork Lift Truck Driver	4(1.4%)

Medical Service, Health Care	Rehabilitation Therapists, Oriental Medical Doctor, Clinical Counselor, Psychology Counselor	4(1.4%)
Home-Based Worker	Home-Based Worker(Side Job), Internet Business	4(1.4%)
I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mputer Programmer, Web Designer, CG	3(1.0%)
Finance, Insurance	Bank, Finance	2(0.7%)
Financial Affairs, Accounting, etc.	Inventory, Accountant	2(0.7%)
Others	Walking Holiday, Coffee Shop Start-Up	2(0.7%)
Automobile, Machinery	Car Service Worker	1(0.3%)
Construction, Architecture	Applied Computational Engineering(Engineer)	1(0.3%)
Not shown		176 (60.7%)
Total		290 (100.0%)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희망한 직종은 ‘생산, 제조 관련직(17명, 5.9%)’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서비스 관련직’과 ‘공공행정사무직(각각 16명, 5.5%)’, ‘미용, 여행, 숙박, 청소 관련직(12명, 4.1%)’과 ‘사회복지 관련직(11명, 3.8%)’이 많았다.

3.2 Desired works of question content by different kinds of disability

<표 7>은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 희망 직종을 정리한 것으로, 질문자가 없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장애유형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취업을 원하는 직업 및 직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애인의 수가 40%로 많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직업을 희망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들은 ‘공공행정사무직(5명, 31.3%)’과 ‘생산·제조 관련직(4명, 23.5%)’을 가장 희망하였다. 지적장애인들은 ‘음식서비스 관련직(7명, 43.8%)’과 ‘생산·제조 관련직(6명, 35.3%)’, ‘미용, 여행, 숙박, 청소 관련직(4명, 33.3%)’을 많이 희망하였다. 정신장애인들도 지적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미용, 여행, 숙박, 청소 관련직(5명, 41.7%)’을 많이 희망하였다.

IV. Discussion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취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일자리를 얻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직활동 중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취업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개별 장애인들의 취업욕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Table 7> Desired Works by Different Kinds of Disability

Disability Types Desired Works	Disability Types													Total
	PD	BL	VI	HI	LD	ID	ASD	PD	RD	FD	E	MD		
Production, Manufacturing	4 (23.5)	0	2 (11.8)	1 (5.9)	0	6 (35.3)	0	2 (11.8)	1 (5.9)	0	0	1 (5.9)	17 (100)	
Food Service	1 (6.3)	1 (6.3)	0	0	0	7 (43.8)	0	0	0	0	0	1 (6.3)	10 (62.5)	
Public Administration	5 (31.3)	1 (6.3)	2 (12.5)	2 (12.5)	0	0	0	2 (12.5)	0	0	0	0	12 (75.0)	
Beauty, Travel, etc.	1 (8.3)	0	0	1 (8.3)	0	4 (33.3)	0	5 (41.7)	0	0	0	0	11 (91.7)	
Social Welfare	0	0	2 (18.2)	0	0	2 (18.2)	0	2 (18.2)	0	0	1 (9.1)	2 (18.2)	9 (81.8)	
Law, Police, etc.	3 (37.5)	0	1 (12.5)	0	0	0	0	1 (12.5)	0	0	0	2 (25.0)	7 (87.5)	
Culture, Art, etc.	0	0	1 (16.7)	0	0	3 (50.0)	0	2 (33.3)	0	0	0	0	6 (100)	
Education	0	0	1 (20.0)	1 (20.0)	0	0	0	0	0	0	0	0	2 (40.0)	
Driver, Transportation	0	1 (25.0)	1 (25.0)	0	0	1 (25.0)	0	1 (25.0)	0	0	0	0	4 (100)	
Medical Service, Health Care	0	0	0	1 (25.0)	0	0	0	0	0	0	0	0	1 (25.0)	
Home-Based Worker	0	0	0	1 (25.0)	1 (25.0)	1 (25.0)	0	0	0	0	0	0	3 (75.0)	
I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0	0	0	0	0	1 (33.3)	0	1 (33.3)	0	0	0	0	2 (66.7)	
Finance, Insurance	0	0	0	1 (50.0)	0	0	0	0	0	0	0	0	1 (50.0)	
Financial Affairs, Accounting, etc.	0	0	0	1 (50.0)	0	1 (50.0)	0	0	0	0	0	0	2 (100)	
Others	0	0	0	1 (50.0)	1 (50.0)	0	0	0	0	0	0	0	2 (100)	
Automobile, Machinery	0	0	0	1 (100)	0	0	0	0	0	0	0	0	1 (100)	
Construction, Architecture	0	0	0	1 (100)	0	0	0	0	0	0	0	0	1 (100)	
Total	14	3	10	12	2	26	0	16	1	0	1	6	91	

첫째, 취업을 원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인터넷 지식검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인들이 많았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정보화교육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터넷 구직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장애인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24, 25, 7], 장애인에게 인터넷 구직활동과 같은 공식적 구직방법에 의한 구직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물리적 이동 및 활동의 제약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오히려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취업률과 직업 범위가 좌우된다[26].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을 활용한 구직활동이나 직업 관련 교육의 확산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7].

둘째, 취업 관련 질문 내용 유형은 장애유형에 따라 조금 달랐지만, 그 질문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특히 자신의 장애특성 때문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장 알고 싶어 했으며,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심지어는 장애특성상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많아 자신의 직업 선택에 있어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실을 연구한 강종구 외의 연구 [8]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태도와 욕구가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임을 보여 준다. 또한 취업 시 받는 급여로 인해 장애수당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질문이 많았는데, 김성용과 강상경의 연구[28]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애인의 근로동기를 감소시켜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취업 정보와 같은 지식적 측면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스스로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직업과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 상담의 지원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의 고충 또는 면접과 같은 취업 어려움에 대한 질문도 많아 심리·정서적 측면의 지원 또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취업 희망 직종은 장애유형에 따라 조금 달랐지만, 구체적인 취업 희망 직업은 매우 다양했다. 대체로 생산, 제조 관련직, 음식서비스와 공공행정사무 관련직을 많이 희망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워크넷 자료를 분석한 최국환의 연구[29]에서도 나타나 환경, 인쇄 등의 생산 단 순직의 구직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와 비슷하게 2015년 2/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에서도 경비 및 청소 관련직(23.1%), 생산 단순직(19.9%), 회계 사무직(18.2%) 순으로 구직자수가 많았다[30].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비교 결과에서는, 구직자수가 법률, 경찰 관련직(160.0%), 금융 및 보험 관련직(69.2), 교육 및 연구 관련직(49.2%), 사회복지 관련직(46.5%)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구인수는 운전 및 운송 관련직(211%)과 보건 및 의료 관련직(126%) 등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법률, 경찰 관련직(-30.0%), 금융 및 보험 관련직(-22.0%)은 감소하여 장애인들 역시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의 최근 고용률은 37% 내외로 나타나[31], 전체 인구의 최근 고용률(60% 내외) 대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및 직업재활기관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희망 직종과 실제 취업욕구 및 어려움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진 개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형화된 설문을 통한 기존의 양적 연구보다는 장애특성을 반영한 개별 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B. Park, D. Y. Jeong, "An Empirical Study on Web-based Question-Answer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 21, No. 3, pp. 31-38, 2004.
- [2] B. S. Kim, J. H. Jeon, and Y. S. Kang, "Understanding a User's Service Usage and Knowledge Shar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Knowledge Search Service," *Korea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Vol. 10, No. 2, pp. 85-103, 2009.
- [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search on the digital divid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pp.1-301, 2009.
- [4] Jansen, J. B., & Jansen, J. K. "Using the web to look for work," *Internet Research*, Vol. 15, No. 1, pp. 49-66, 2005.
- [5] Kuhn, P., & Skuterud, M. "Internet and traditional job search methods 1994-1999," *IRPP and CERF Conference on Creating Canada's Advantage in an Information Age*, 2000.
- [6] Kuhn, P., & Skuterud, M. "Internet job search and unemployment dur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1, pp. 218-232, 2004.
- [7] B. H. Lee, U. Lee, and R. Im, "The Effect of Computer Education on Internet Job searching among a Physically Challenged Person-Focusing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Divid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1, No. 1, pp. 39-58, 2011.
- [8] J. G. Kang, S. K. An, S. Y. Jeong, Y. H. Chung, and R. K. Kim, "The Exploration about Employment Reality and Support Method of College Graduate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8, No. 3, pp. 95-113, 2014.
- [9] H. S. Im, H. J. Lee, "Determinant of Employment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Disability & Employment*, Vol. 19, No. 3, pp. 27-50, 2009.
- [10] S. D. Park, S. J. Kim, "A Study on Employment Status and Needs of People with Renal Diseas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41, pp. 179-200, 2003.
- [11] H. J. Lee, W. H. Choi, and S. I. Kwon, "Decent Work Perceived by the Non-employed Handicapp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8, pp. 93-121, 2011.
- [12] K. H. Son, M. Y. Sim, and D. M. Yeum,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or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entering on Income, Health and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Disability & Employment*, Vol. 20, No. 1, pp. 129-150, 2010.
- [13] K. T. Kim, B. H. Park, C. H. Kang, S. K. Lee, and K. H. Lee, "A Study of Disabled Women's Job Need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7, pp. 33-66, 1999.
- [14] H. J. Park, S. W. Lee, "A Study on the Employment Needs Amo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0, No. 2, pp. 83-110, 2007.
- [15] E. S. Ahn, "Factor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for the Handicapped; Analyzed through Their Desire for Employment - Focusing on the Visually Handicapped -,"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4, No. 1, pp. 83-119, 2008.
- [16] S. C. Oh, "The study on the needs of employment of university student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44, pp. 21-44, 2004.
- [17] S. G. Lee, "A Study on Effect of Factors on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Needs of Disabled Peopl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1, No. 2, pp. 109-138, 2001.
- [18]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e study on the needs of employment of students in special class"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p.1-98, 1997.
- [19] S. K. Oh,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Work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0, No. 4, pp. 259-282, 2009.
- [20] Y. K. Cho, "Women with disabilities maintain 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0, No. 1, pp. 129-145, 2010.
- [21] Y. T. Kim, "Analysis of the Employment channels of Disabled employees: Focus on social network," Disability & Employment, Vol. 21, No. 3, pp. 5-26, 2011.
- [22]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A Study of Disabled's Job Needs 94-1"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p.1-40, 1994.
- [23] Naver Encyclopedi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2054&cid=43167&categoryId=43167>
- [24] K. R. Lee, J. K. Park, "Condition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nd Perception to the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9, No. 1, pp. 289-308, 2007.
- [25] Roy, A. W. N., Dimigen, G., & Taylor, 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s and the employment of visually impaired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Vol. 92, No. 7, pp. 423-432, 1998.
- [26] G. M. Lee, I. S. Kim, and M. J. Lim, "A Study on the Plans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Science, Vol. 22, No. 1, pp. 115-129, 2004.
- [27] D. U. Kang, "The solution for digital divide and information in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al Policy Institute, Vol. 12, No. 2, pp. 217-244, 2000.
- [28] S. Y. Kim, S. K. Kahng,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on Employment among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 Focusing on Age Differenc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9, No. 2, pp. 1-26, 2015.
- [29] G. H. Choi, "The analysis of job-offer, job-search, an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e task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2, No. 1, pp. 27-49, 2012.
- [30]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Quarterly analysis report of employment service for the disabled - 2015(2/4)"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p.1-40, 2015.
- [31] J. M. Kim, H. J. kim, J. H. Ko, S. C. Kim, and J. C. Choi, "Research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in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p.1-353, 2014.

Authors



Mi Young Choi received the B.S., M.S. degrees in Science Education and Ph.D. degrees in Special Education from Dankook University, Korea, in 2001, 2005 and 2013, respectively.

Dr. Choi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Seow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physics and science education for all students includ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